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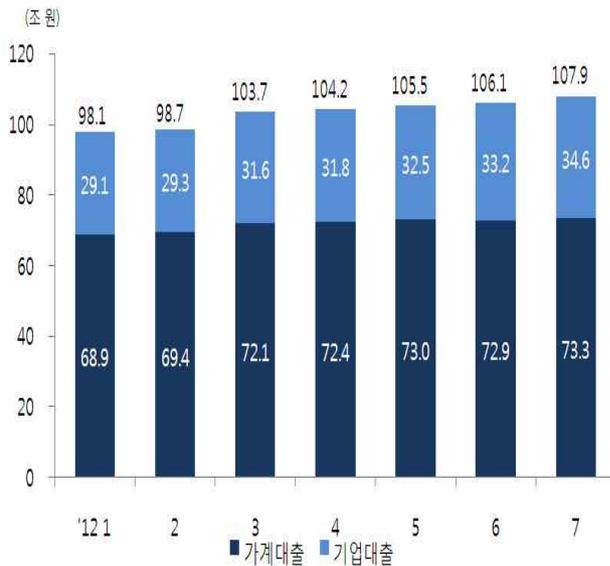
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 증가세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7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107조 9,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조 8,700억 원 늘어났으며, 특히 기업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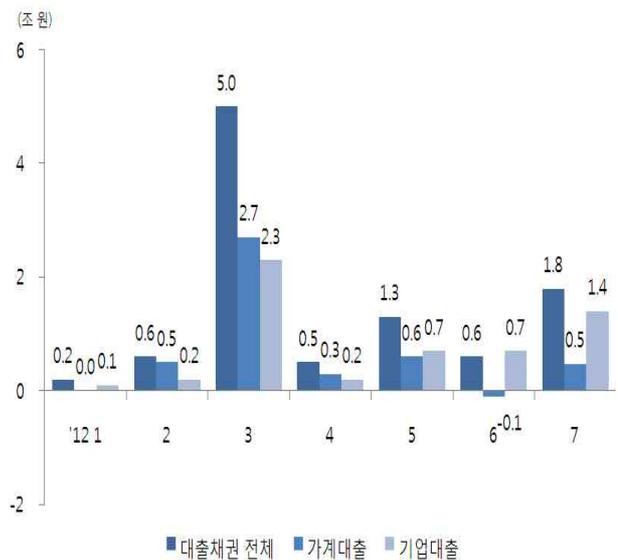
- 가계대출의 경우 보험계약대출(+2,500억 원) 및 주택담보대출(+1,800억 원)이 늘어남에 따라 4,700억 원 증가한 73조 3,000억 원을 시현함.
- 기업대출의 경우 중소기업대출(-1,700억 원) 및 부동산 PF대출(-1,300억 원)은 감소하였으나 대기업대출(+1조 5,600억 원)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1조 3,900억 원 늘어난 34조 6,000억 원을 기록함.

〈그림 1〉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〈그림 2〉 보험회사 대출채권 증가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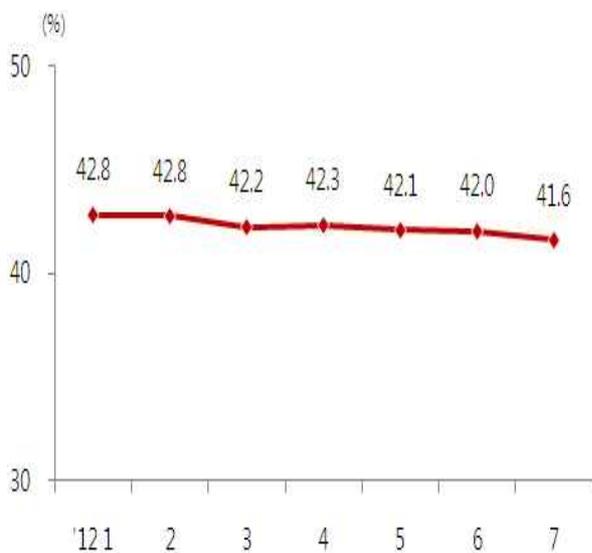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■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 비중이 높고 전체 대출채권 건전성 지표도 안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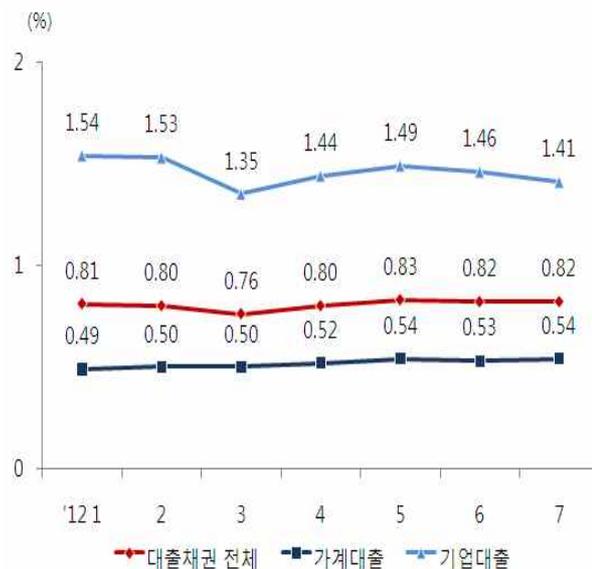
- 2012년 7월 말 기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상계가 가능한 보험계약 대출채권 비중이 전체의 41.6%를 차지함.
- 대출채권 연체율은 0.82%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, 전년동기 대비로는 0.21%p 하락함.
 - 가계대출 연체율은 0.54%로 전월 대비 0.01%p 상승하였으며, 기업대출 연체율은 1.41%로 0.05%p 하락함.

〈그림 3〉 보험계약 대출채권 비중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〈그림 4〉 대출채권 연체율



자료: 금감원 보도자료.

(2012년 7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, 금감원, 9/17)